

지역 소식통

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일손 부족 해결 '특목'

정읍시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류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12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 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99종 1,466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 소 관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고창군이 고품질의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를 지원한다.

고창군은 지역 농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선 사육환경과 사육조건, 자급사료 기반 가축 입식·출하, 사료·영양관리, 동물복지·질병 관리 등 인증 기준에 맞게 가축을 사육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등의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또는 법인이 대상이고, 인증비용인 신청비와 출장비, 심사·관리비 등의 세부 항목별 한도금액 기준 이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여름 간식 책임질 '고창수박빵'

첫선 보인 홍보부스 '문전성시'... MZ세대 취향저격

동그라만 초록색에 짙은 줄무늬 반으로 자르면 빨간 속살에 점점이 박혀있는 씨까지 빨간 앙금에서 새콤하고 달콤한 수박 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고창 수박이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와 만난다.

'대한민국 수박의 성지' 전북 고창군이 고창수박으로 만든 캐러밴빵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올해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에서 첫선을 보인 '수박빵'은 고창수박과 고창북분자를 원료로 향긋한 수박향과 달콤하면서도 촉촉한 앙금이 맛의 조화를 이룬다. 검은깨를 활용해 수박씨를 표현하며 먹는 재미와 맛의 고소함을 더했다.

수박빵 제조업체는 제과 기술이 뛰어난 일본 캐러밴빵을 뛰어넘는 우수한 국산빵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고창수박을 원료로 만들었다. 국내 유명작가와 디자이너가 협업해 포장 디자인



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고창수박빵은 커피나 우유 등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이 좋고, 얼려 먹어도 젤라또와 같은 느낌을 맛볼 수 있다.

소중한 가족과 연인 특별한 기념일에 선물할 수 있는 고창 수박빵은 고창군을 대표하는 관광 디저트 상품으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고창수박빵 임득선 대표는 "지속적으로 청정하고 고창의 농산물을 활용해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캐릭터 제품으로 전분주, 아이스크림, 음료, 카라멜 초콜릿 등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고창수박빵은 카카오프렌즈, 마켓컬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창군 농특산물판매장 학원농장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20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 '선정'

정읍시, 두손푸드·동방이노베이션... 경영개선 보조금 3000만원 등 각종 금융지원 혜택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읍시에 소재한 (주)두손푸드(대표 구성규)와 (유)동방이노베이션(대표 김준식)이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 상'은 매년 지역경제의 주춧돌이 된 도내 중소 제조업체 대표와 기업지원 공헌도가 높은 경제단체 대표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에 따르면 (주)두손푸드는 죽과 음료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매출 신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유)동방이노베이션은 CCTV와 자동기상관측기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우수 신제품 개발에 기여한 결과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에 따라 선정된 2개 기업은 3천만원의 경영개선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공로패와 인증현판을 받게 된다. 또 '성장 사다리 육성사업' 등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에 참여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각종 금융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시는 기업인 간담회와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내 기업 애

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 기업의 고충과 규제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6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주신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면서 "지역 내 기업들이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상권 르네상스'

정읍시, 사업계획수립 최종보고회... 보완점 등 논의

정읍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하는 등 상권의 부흥을 유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추진을 위한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해 5개년간 국·도비 등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상권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상권 활성화(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테마존 운영, 상권홍보, 마케팅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와 환경개선(테마별 디자인거리 조성 및 거리 정비 등)이다.

시는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현재 '정읍시 생고을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최재용 부시장과 관련된 부서장이 참석해 용역수행처의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질의응답, 참석자 검토의견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또 용역을 통해 완성된 사업계획(안)을 분석하고, 보완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용 부시장은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신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거리 정비 등)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추진을 위한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해 5개년간 국·도비 등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상권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상권 활성화(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테마존 운영, 상권홍보, 마케팅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와 환경개선(테마별 디자인거리 조성 및 거리 정비 등)이다.

시는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현재 '정읍시 생고을시장 및 주변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최재용 부시장과 관련된 부서장이 참석해 용역수행처의 연구용역 최종 보고와 질의응답, 참석자 검토의견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또 용역을 통해 완성된 사업계획(안)을 분석하고, 보완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용 부시장은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신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농기센터, 미생물농업 복분자 생산 증대 도움

고창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생물 농업이 복분자 생산성 증대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는 "지난해부터 미생물 농법을 꾸준히 실천한 복분자 재배 농가들의 생산성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복분자 안정생산 시범사업(농진청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소와 '복분자 고사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 연구과제를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남대 연구팀(김길용·한연수 교수)은 고창군 복분자 농가에 '유용 미생물 대량 배양 농법'을 시범 적용했다. 미생물 농법은 미생물을 대량 배양해 생산된 배양액과 천연 뿌리 발근제를 복분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물팀(팀장 박근성)은 "복분자 다수확을 위해서는 토양관리와 우량묘 정식, 병해충 방제 등 꾸준한 생육관리에 달려있다"며 "미생물 농법은 바로 복분자의 건전한 생육관리를 위한 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범사업 2년여 만에 복분자의 뿌리 발육, 분화, 성장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생물 농법을 꾸준히 실천한 복분자 재배 농가들의 생산성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대산면 강영철 농가는 "묘목 정식 전에 대량 무여한 벼짚이 미생물의 정착과 활동에 영향을 주면서 올해 복분자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물팀(팀장 박근성)은 "복분자 다수확을 위해서는 토양관리와 우량묘 정식, 병해충 방제 등 꾸준한 생육관리에 달려있다"며 "미생물 농법은 바로 복분자의 건전한 생육관리를 위한 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제 TF단 회의 개최

부안군은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김종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고향사랑기부제 TF단을 지난 5월에 구성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제정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21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고향사랑 TF단은 총괄 사업, 답례품



세 분야로 구성됐으며, 팀별 전문성을 활용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제도 정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사업 발굴, 답례품 구성·선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고향 또는 희망 광역단체 및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인당 500만 원 한도로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의 16.5%의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액의 30% 상당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김종택 부군수(TF단장)은 "기부금 신청·접수 및 답례품 개발, 기부금 사용을 위한 주민 복지증진 사업발굴까지 충분히 연구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